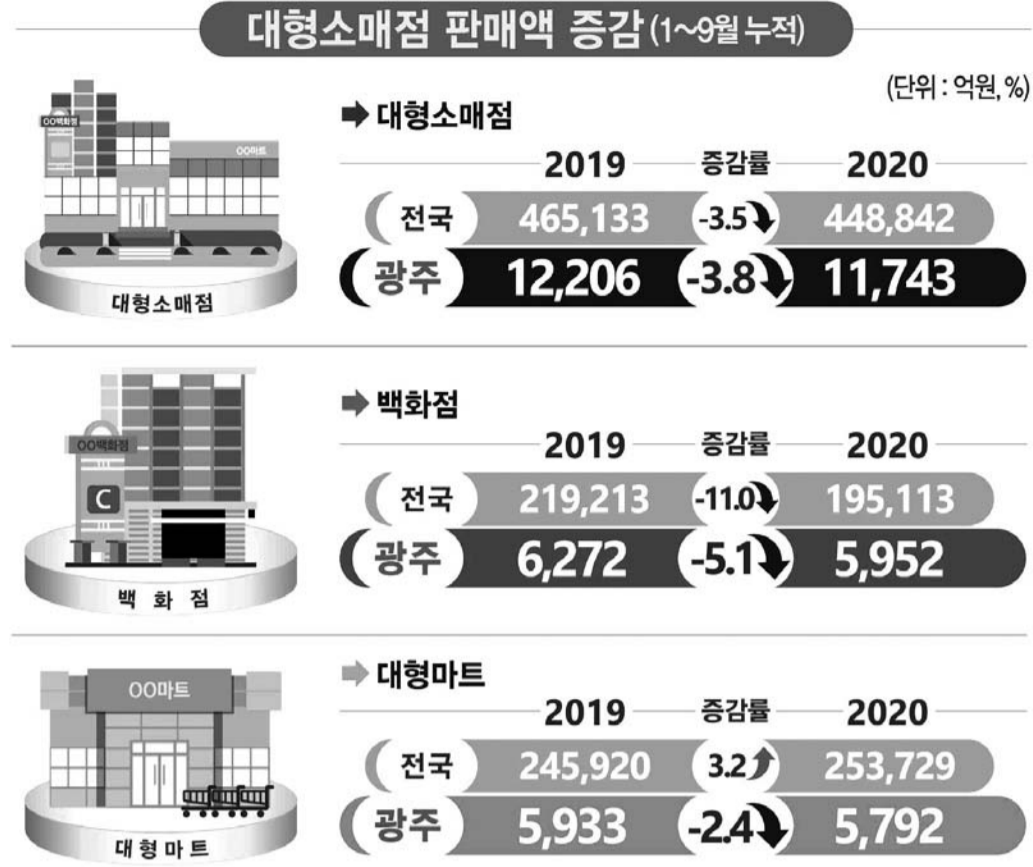


'소비 위축' 광주,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뚝'

호남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광주 7대 특·광역시 중 매출 6위 인구 규모 비슷한 대전 판매액의 78.7% 수준 1조1743억원 기록
올 1~3분기 전년비 463억원 감소...3분기 감소율 -6.1% 전국 최저

올해 광주 백화점 3곳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2개 대형마트 매출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에 따르면 광주 올해 1~3분기(1~9월) 누적 판매액은 1조17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206억원 보다 463억원(-3.8%) 줄었다.
전국(44조884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다.
광주 매출 감소율(-3.8%)은 전국 평균(-3.5%)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7대 특·광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비교하면 광주는 울산(1조1342억원)에 이어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이 13조6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조9692억원), 대구(2조7043억원), 인천(1조7382억원), 대전(1조4911억원), 광주(1조1743억원), 울산(1조1342억원)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 판매액의 78.7% 수준에 그쳤다. 팔찌인 울산과 차이는 401억원에 불과했다.
대형소매점 유형별로 광주 매출을 나누면 백화

점은 5952억원(50.7%), 대형마트는 5792억원(49.3%)으로 비슷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백화점 매출은 320억원(-5.1%), 마트는 141억원(-2.4%)이 줄었다.
올해 광주 백화점(19조5113억원)과마트(25조3729억원) 판매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3.1%와 2.3%에 그쳤다.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 50.7%, 대형마트 49.3%로, 전국 구성비와 비교할 때 백화점은 7.2%포인트 높고, 대형마트는 7.2%포인트 낮다.
3분기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만 놓고 볼 때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6.1%(4175억원→3920억원) 감소, 전국 판매액이 1.2%(15조6220억원→15조805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7.3%포인트 낮은 대비를 이뤘다.
증감률은 인천(5.2%), 부산(4.3%), 대구(2.0%), 서울(0.6%), 울산(-3.3%), 대전(-4.5%), 광주(-6.1%) 순으로, 3분기 들어 광주 소비침체가 가장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광주 대형마트들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1~3분기 광주 대형마트 판매액은 지난해 같



은 기간(5933억원)보다 2.4%(-141억원) 감소했는데,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전국 매출은 3.2% 오른 25조3729억원을 기록

이마트 광주점 14년 만에 리뉴얼 프리미엄 가전·체험 공간 등 확대

이마트 광주점은 개점 14년 만에 전관 개선공사(리뉴얼)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개선공사는 2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1층 일부 새단장은 지난 달 29일 완료했다.
이번에는 패션·잡화, 완구 등 2층 매장 개선을 마쳤다. 새단장한 광주점에는 프리미엄 가전과 '토이킹덤', 패션 브랜드관 등이 문을 열었다.
이마트는 16kg 초대용량 건조기와 65인치 이상 TV 등 프리미엄 가전을 대폭 확대했다. 토이킹덤은 체험형 공간을 매장의 30% 수준으로 넓혔다. 패션·잡화매장에는 18여 개 브랜드가 들어섰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29일까지 새단장 기념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사인머스켓(2~3송이)을 1만7430원에 선보이며, 밀감(4kg) 8900원, 손질오징어(4미) 8400원에 판매한다. 26일에는 고산지 바나나·당찬사과를, 27일에는 애호박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12월6일까지 삼성·LG 가전을 사면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준다. 토이킹덤에서는 레고 행사상품을 30%, 브루리 전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철 농산물 저렴하게" 26일 김석기(가운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2020 가을걷이 전남우수농산물 행복장터(29일까지)'가 열리는 농협 성남유통센터를 찾아 전남 농산품을 홍보했다. 행사 기간 동안 제철 농산물을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4인 기준 김장비용 30만3천원

지난주 대비 4357원 상승
갓 2.6kg 1만4015원...10.1%↑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4인 기준 김장비용이 30만원 선으로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장재료 구입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은 지난해 대비 1.5%(4357원) 상승한 30만3131원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오른 주요 품목은 배추와 미나리, 갓 등이다.
배추 20포기값은 전주 6만745원에서 1.4% 오른 6만1608원을 기록했다. 무 10개 가격은 1만9681원으로, 전주보다 1.2% 내렸다.
김장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출하량이 많지 않은 갓과 공급량이 줄어든 미나리는 값이 올랐다.
갓 2.6kg 가격은 전주 1만2726원에서 이번 주 1만4015원으로 무려 10.1% 올랐다. 미나리 2kg은 7.4% 오른 1만8143원을 나타냈다.
저장업체의 공급량이 늘어난 생강·마늘 등 양념 채소류는 다소 하락했다.
aT는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가격 조사를 받았다.
aT는 aT포스몰(posmall.com)을 통해 유명산지 절임배추 특가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장콘텐츠 홈페이지(posmallcontest.com)에서 오는 12월7일까지 '김장콘텐츠 공모전' 신청을 받는 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76

5월 43 이후 6개월째 상승세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난 5월 바닥을 친 뒤 6개월째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이날 광주·전남 제조업 연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12월 연합전망BSI도 76으로 지난달 전망과 비교해 8포인트 올랐다.
지난 5월 광주·전남 제조업 연합BSI는 4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월(BSI 4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6월(46), 7월(52), 8월(53), 9월(58), 10월(69) 등으로 오른 뒤 이달 70선을 넘겼다.
항목별로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은 76으로 5포인트 올랐으며 수출과 내수판매도 80과 75로 각 5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가동률은 75로 전월과 비교해 5포인트 떨어졌으며 원자재 구입가격(107)과 제품 재고수준(95)도 각 4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체는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33.2%), 내수 부진(20.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8.7%), 수출 부진(5.5), 원자재 가격 상승(4.4%) 등을 들었다.
조사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520곳(응답 40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80억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